

AI 기반 푸드테크 플랫폼 실증 컨퍼런스 개최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산업 성장과 전북 중심지 도약 가능성 조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27일 전주시 데메이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및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함께 '2024 AI 기반 푸드테크 플랫폼 실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푸드테크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봇 제조, 바이오 박테리아, 맞춤형 식품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졌다.

푸드테크 산업은 AI와 박테리아 등 첨단 기술이 식품과 결합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맞춤형 식단 시장이

확장되면서 건강식품 및 맞춤형 영양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약 100여 명의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식품연구원 장화한 단장이 푸드테크 실현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였다.

1부 세션에서는 △푸드테크 식품공정 자동화 및 시뮬레이션 사례(한국식품연구원)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개로 디지털 제조기술과 관련된 최신 실증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2부 세션에서는 바이오 박테리아를 중심으로 △천연물 소재 AI 플랫폼 기반 바이오 R&D 적용 사례(분

자설계연구소) △장내 미생물-헬스 정보 DB 구축 및 활용 방안(한국식품연구원) 등 AI 기반 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소개, 이를 통해 바이오 박테리아가 맞춤형 건강 솔루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3부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이를 주제로 △개인맞춤 건강생활 솔루션(풀무원) △박테리아와 AI를 활용한 건강한 노화 전략(이화여자대학교) △맞춤식이를 위한 식품성분 DB 활용(고려대학교) 등 식품 산업의 데이터 활용 혁신방안이 논의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북이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청년일자리 성과공유회

라한호텔에서 청년·기업인 등 150여명 함께 성황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7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하 '지주청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지주청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시·군 청년들과 소속 기업 실무자, 지자체 및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올 한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문화공연 △특별강연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2명(남원아동발달센터 이금비, 농업회사법인(유)케어팜 하진영)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우수 사례 2명(울리드컴퍼니 최은경, 퍼치케이블 김소라)은 경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지주청사업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인건비(1~2년차: 160만원)와 인센티브(3년차, 최대 1천만원)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문화여가생활비, 역량 강화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총 243명의 청년들이 도내 233개 기업에서 근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장기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3년차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도 200명 이상 배출하였다.

지난 5년간 지주청사업에 참여한 청년 1,724명을 대상으로 경진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은 58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 진출 초기인 청년들의 자립에 지주청사업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년과 지역 경제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우리 청년들은 전북의 희망이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며 "경진원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은, 최고 연 3.51% 씨드모아 자유입출금 통장 인기몰이

최근 예·적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향하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의 파킹통장인 '씨드모아 통장'이 연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씨드모아 통장은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을 대상 일별 잔액에 대해 2.8%의 높은 기본금리를 제공, 이벤트 우대금리 연 0.71%를 더해 최고 연 3.51%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12월 31일까지 이벤트기간 중 신규가입 시 △마켓팅 등의 0.5%, △매일의 최종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추가 0.21%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

또한,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의 제한 없이 입출금이 용이하고, 매력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을 보관하거나 연말 집중된 만기자금을 투자하려는 이들에게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파킹통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신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 시장 침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 틱스 활성화 지원... 스타트업 마중물 역할

2023년부터 TIPS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민간투자사(TIPS 운영사)와 창업기업 투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의 증가부 TIPS 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제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유치 지원한 TIPS 운영사는 각각 2개사와 4개사로, 운영사별 TIPS 도전기업 10개사를 발굴 및 액셀러레이팅하고 TIPS기업 1개 이상 추천 및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사는 2023년 2억5,000만원, 2024년 2억원 각각 지원받았고, 지원금은 TIPS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도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디어 기술 및 경영자, 투자IR 컨

설팅 등을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전라권영 앞에 지난해 개소한 카움 공간에 2023년 선정된 TIPS 운영사 2개의 사무실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VC(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트업이 초기에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TIPS 기업으로 선정되고, TIPS 운영사와 지속 소통하는 것이 향후 후속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아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TIPS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수한 도의 TIPS 운영사를 유치하여 도내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불어, 도내 TIPS 운영사를 육성하

여 2023년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이하 JB기술지주), 2024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경센터)가 운영사로 지정되어 향후 TIPS 기업 선정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JB 기술지주와 전북창경센터는 전북자치도 재간접펀드를 결성했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 투자와 TIPS 기업 선정에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전북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은 "TIPS 활성화 지원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2022년 도내에 TIPS 기업이 한 개도 없을 때 도내 TIPS 선정기업이 2개인 반면, 2023년 8개, 2024년 9월 기준 12개사로 빠르게 늘고 있어 이 사업이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7일 전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건협 전북, 실질자본금·연말결산 교육 실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7일 전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 실적조사에 대한 회원사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이종현 회계사가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및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회계와 세무처리의 주요쟁점에 대해 강의 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소재철 회장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건설업 실질 자본금과 세무·회계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칫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가 필요한 실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